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027 고2 문학 지학사 | 2(1)(2) 천변 풍경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1930년대 서울 청계천 변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천변 풍경」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카메라의 눈’ 기법의 개념과 그 효과를 묻는 문제는 서술형으로도 출제됩니다. 또한 시골 소년 창수의 시선 이동에 따른 심리 변화 과정(동경과 호기심에서 모욕감과 두려움으로의 변화)과 ‘담배 심부름’과 같은 구체적 사건이 가지는 서사적 기능을 묻는 유형도 출제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소년은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가평이 아니라 서울이다.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 아무리 시골서 처음 올라온 소년의 마음에라도,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우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변 풍경’이,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만으로,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하였다.

창수는, 우선, 개천 속 ㉠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겐 딱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절대고, 툭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가 뒹굴고, 그러는 ㉢ 깍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도,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준다는 ‘㉣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이가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다, 시골 아이야.”

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판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뻘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 있는 듯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 가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천변 풍경」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년은 서울에 온 것을 감격스러워하며 천변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 ② 소년은 빨래터에서 나는 방망이 소리를 무던히나 상쾌하다고 느꼈다.
- ③ 소년은 ‘권투’가 무엇인지 몰랐으나 젊은이들의 장난을 재미스럽게 지켜보았다.
- ④ 소년은 ‘승강기’를 타면 현기증이 난다는 수길이의 말에 타는 것을 두려워했다.
- ⑤ 소년은 ‘시골 아이’라는 말을 듣고 자전거 종소리에 놀란 자신에게 모욕감을 느꼈다.

**2. 윗글에 드러난 ‘소년(창수)’의 심리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 ① 감격 → 호기심 → 모욕감
- ② 기대감 → 불안감 → 안도감
- ③ 동경 → 실망감 → 체념
- ④ 신기함 → 경계심 → 분노
- ⑤ 지루함 → 흥미 → 두려움

**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 ② 소년의 시선 이동을 따라 대상을 차례로 묘사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대비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직접 비판하며 논평하고 있다.
- ⑤ 비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4. 윗글에서 ‘소년’이 서울 사람들을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들이 ‘임바네스’나 ‘종산모’ 같은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 ② 자신이 동경하던 ‘서울’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 ③ ‘인력거’와 같은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어서
- ④ ‘권투’ 연습처럼 시골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 ⑤ ‘꼭정이 떼’ 들조차 서로 돕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어서

**5. ㉠~㉣에 대한 ‘소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방망이 소리가 귀에 상쾌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다.
- ② ㉡: 무슨 장난인지 몰랐지만 펍 재미스럽다고 느꼈다.
- ③ ㉢: 서울에 살기 때문에 그들조차 행복할 것이라 여겼다.
- ④ ㉣: 현기증이 날 것이라는 말에 타 보고 싶은 마음을 접었다.
- ⑤ ㉤: 요란한 소리에 질겁하여 허둥대며 피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년은, 드디어, 그렇게도 동경해 마지않던 서울로 올라오고야 말았다. 청량리를 들어서서 질편한 거리를 달리는 승합자동차의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것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시골 ‘가평’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야, 전차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곧, 우선 저 전차에 한번 올라타 보았으면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감격을 일일이 아랑곳하지 않고, 동관 앞 자동차부에서 차를 내리자, 그대로 그를 이끌어 종로로 향한다.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쉴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리,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밧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뚝뚝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어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 잃어버릴 뻔하다가 찾는 찾아내고, 찾아내고 한 소년은, 종로 네거리 광대한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예가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저, ㉢ 화신상……, 화신상이란 데야.”

“화신상요? 그래, 아무나 들어가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는 겨우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의 속담을 그대로 좇아,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으면서도,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내 그의 손을 잡고 ‘한성’으로 올라온 것이다.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화신 상회에, 자기 자신 오래간만이니 잠깐 들어가 보고도 싶었으나, ㉣ 그는, 자식의 앞길을 결정하는 사무가 완전히 끝나기까지, 자기의 모든 거조가, 그렇게도 긴장되고, 또 경건하기를 바랐다.

청계천 변, 한약국 주인 방에, 가평서 올라온 부자는 주인 영감과 마주 대하여 앉았다.

“애가 자제요니까?”

“네…… 애, 인사 여쭙라.”

(중략)

소년은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신기롭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가평이 아니라 서울이다.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 아무리 시골서 처음 올라온 소년의 마음에라도,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우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변 풍경’이,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만으로,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하였다.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

며, 종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가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즐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도,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준다는 ‘@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 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 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 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야.”

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짝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뻘뻘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할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 가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는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 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가 앉아,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

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번번히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덕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도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딱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년이, 그렇게, 서울에서의 자기에 대하여, 눈곱만 한 자신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룻밤이라 같이 묵어 주는 일 없이, 그대로 무자비하게도 자기의 볼일만을 보러, 영등포라나 어디라나로 떠나 버렸으므로, 어린 창수는, 대체, 혼자서, 이제, 어찌하여야 좋을지, 끝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야, 아버지는, 내일 아침 가평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한약국에를 들르마고,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나, 그까짓 것이 그의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 얼마 있다, 주인 영감이 ‘피죤’ 한 갑 사오라고 한 장의 일 원 지폐를 내어 주었을 때, 담배 가게가 어디 붙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모르는 창수는 고만한 심부름에도 애가 쓰였다.

돈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그의 등에다 대고, 주인 영감은 생각난 듯이 한마디 하였다.

“너, 담배 파는 데, 아니?”

“네.”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또 얼굴을 붉히며, 천변에 나와, 대체, 어디로 발길을 향해야 좋을지 분간을 못 하고 있었을 때,

“너, 심부름 가니?”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그저 앉아 있는, 아까 그 아이가 말을 또 걸어, 그래,

“응”

하고 대답하니까,

“뭘. 무슨 심부름.”

“담배.”

하니까, 마음씨는 착한 아이인 듯싶어,

“저기, 배다리 가게서 판다.”

일러 주는 그 말이, 이 경우의 창수에게는 껍이나 고마웠다.

창수는 한달음에 다리 모퉁이 반찬 가게로 뛰어갔다.

“담배 한 갑 주세요. 마코요…… 아니, 저, ◎ 피죤요.”

아버지는 늘 마코만 태우신다. 구장 영감도 피죤을 태우는 것을 못 보았다. ‘죤 영감’은 참말 부잔가보다…… 창수는 썩 지전을 내놓았다.

주인 영감이 일 원 지폐를 그에게 주었던 것은, 혹은, 따로 잔돈이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간단한 셈이라도 소년이 칠 줄 아나 어떤가 시험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창수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서투르지 않다.

마침내, 그는, 한 갑의 담배와, 아홉 개의 백통전을, 주인 영감 책상머리에 갖다 놓고, 제 댄에는 무슨 크나큰 일이나 치른 듯이, 가만한 한숨조차 토하였던 것이나, 돈을 세어 보고 난 주인 영감이, 뜻밖에도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서, 가장 못마땅한 듯이 그의 얼굴을 면구스럽게 쳐다보며,

“너, 얼마 거슬러 온 거냐?”

한마디 말에, 그만 창수의 얼굴은 어처구니없이 붉어지고,

“구십, 구십 전이죠. 왜, 저…….”

변변하지 못하게 말소리조차 더듬어지는 것을, 제 자신, 어찌는 수 없이,

“그래, 이게 구십 전야?”

주인 영감이 거의 음성조차 높여 가지고, 그의 눈앞에 내보이는, 그 거슬러 온 돈을 다시 한번 세어 보아도, 역시 틀림없이 아홉 푼이기는 하였으나, 성미 급하게 주인 영감이 마침내 집어서 보여 주는 그 종의 한 푼은, 둘레는 거의 십 전짜리만이나 하였어도, 역시 틀림없는 오 전짜리 백통전이 분명하였다.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 가지고, 대체, 이제 어찌해야 좋을 것인지, 어림이 도무지 서지 않았다.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는 이러한 경우를 당해 본 일이 없었다. 그러한데, 이곳은, 더구나, 누구라 하나 아는 사람을 가지지 못한 서울 한복판이 아니냐? 소년은 금방 울 것 같은 마음으로 오 전짜리 백통전을 내려다보며, 얼마 동안 바보같이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았다.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옳은 것인지, 우선, 그것만 알아낼 수 있더라

도 당장 살 것 같았다.

그러하였던 까닭에, 그때 옆에서 장부를 뒤적거리고 있던 흥 서방이, 비로소 말참견을 하여

“어여, 가게 한 번, 다시 갔다 오너라.”

일러 주었을 때, 창수는, 오직 그 말 한마디로 금시에 소생이나 하고 난 듯이, 가만히 숨 쉬고, 부리나케 다시 가게로 달음질쳐 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창수가,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 가며 하는 말을, 반찬 가게 주인은 결코 끝까지도 들어 주지 않았다.

“애, 어림두 없는 소리는, 허지두 말어라.”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였을 뿐으로, 다음은, 마침 무엇을 사러 나온 칠성 아범을 보고, 자기가 이 장사를 열네 해를 하였어도, 이제까지, 단 ‘고린전’ 한 푼 셈을 틀러 본 일이 없었노라고, 그것을 역설하여, 단순한 민 주사 집 하인의 찬동을 어렵지 않게 얻었다.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그러한 온갖 감정이 뒤범벅을 한 눈을 들어,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 경우에 아무런 보람도 있을 턱 없이, 그대로 하는 수 없는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 앞에까지 왔던 것이나, 그냥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 채, 담에 시름 없이 몸을 기대서려니가, 이제까지 목구멍 너머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바로 제때나 만난 듯이 복받쳐 올랐다.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로만 보내 달라고, 어머니며, 아버지를 졸랐던 어찌까지의 자기가 자꾸 뉘우쳐졌다. 아버지가 불일 보러 간 곳이 대체 어디쯤인지, 만약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소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의 편’일 것으로, 어린 아들을 좀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

④ 그러나, 이튿날 아침, 차 시간이 촉박하여, 단 오 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분주하게 약국에를 들른 아버지는, 결코, 창수에게 그러한 말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주인 영감에게 향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식을, 잘 좀 나무라 주시고, 지도해 주시어,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해 주십사고, 그러한 것을 또 당부하였고, 창수에게는, 그저 매사를 주인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

고,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까, 바깥,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리고 또 몸 성히 잘 있어야 한다고, 집을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당부하던 그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하였을 뿐으로, 서투른 숨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을, 잠깐 애달프게, 또 일종 미쁘게 내려다본 뒤,

“애.”

하고 은근히 아들에게,

“그저 한시 쉬지 말구,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렇게 또 한 번 타이르고서는, 다만 대문간까지라도 아들이 따라 나올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창수는 겨우 입을 열어,

“아버지, 안녕히 내려가세요.”

단 한마디 인사말을, 그것도 거의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려 보았을 그뿐으로, 순간에 떠도는 눈물을,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그 다음에,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에는, 이미 아버지의 모양을 이 한약국 구석진 방에 찾을 수 없었다. 창수는 별 까닭 없이 잠깐 그 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혼잣말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 갈 것인가 — 문득,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탐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 「천변 풍경」

###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창수는 아버지를 따라 가평에서 서울로 왔다.
- ② 창수의 아버지는 아들을 서울에 보낸 후 하룻밤을 묵고 떠났다.
- ③ 한약국 주인 영감은 창수에게 ‘피존’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 ④ 창수는 반찬 가게 주인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다고 말했으나 거절당했다.
- ⑤ 이발소 아이는 창수에게 담배 파는 곳을 알려 주었다.

### 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며 본 풍경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호흡을 조절하고 장면을 연속적으로 제시한다.
- ③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당대 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 ⑤ 시간의 흐름을 역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강조한다.

### 8. 윗글을 바탕으로 ‘창수’의 심리 변화를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울 도착 직후) 전차, 자동차, 높은 건물 등을 보며: 놀라움, 흥분
- ② (천변 풍경을 둘러보며) 빨래터, 권투 연습 등을 보며: 신기함, 재미, 기대
- ③ (서울 아이들에게 놀림당한 후) 자전거 종소리에 놀라며: 모욕감, 두려움
- ④ (담배 심부름을 잘못된 후) 주인 영감에게 꾸중을 들으며: 난감함, 부끄러움
- ⑤ (아버지가 떠난 직후) 혼자 한약국에 남겨진 것을 깨달으며: 안도감, 해방감

###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은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울의 근대 문물로, 창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② ㉣은 창수가 아버지에게 들어가 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한 곳이다.
- ③ ㉢은 창수가 수길이에게 들은 적이 있으며, 머리가 어쩔할까 봐 타고 싶어 하지 않는다.
- ④ ㉢은 ㉠, ㉡, ㉢과 달리 창수에게 좌절과 곤경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 ⑤ ㉢을 통해 창수는 주인 영감이 아버지나 구장 영감보다 부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천변 풍경」은 1930년대 서울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그린 세태 소설이다. 이 작품은 7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50절의 독립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물이나 사건의 총체성보다는 청계천 변이라는 ‘공간의 총체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소설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파노라마식으로 묘사된다.

- ① 윗글은 <보기>에서 언급된 50절의 이야기 중 ‘제3절 시골서 온 아이’에 해당한다.
- ② 윗글의 배경이 되는 ‘청계천 변’은 <보기>의 ‘공간의 총체성’을 이루는 중심 공간이다.
- ③ 윗글에 등장하는 ‘이발소 아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70여 명의 인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④ 윗글의 ‘창수’는 50절의 이야기를 모두 이끌어가는 단일한 중심인물이라 할 수 있다.
- ⑤ 윗글에서 ‘빨래꾼들’, ‘젊은이들’, ‘깍정이 떴’ 등의 모습이 묘사된 것은 <보기>의 ‘다양한 인물들의 생활상이 파노라마식으로 묘사’되는 방식과 관련된다.

##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1. 정답 ④

소년은 수길이에게 현기증이 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두려워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고 했으며,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하였다’고 했다.

② ‘쉴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③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에서 권투를 모르고 있음이 드러나며,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 재미스러웠다’고 밝히고 있다.

⑤ ‘애가 시골 아이다’라는 말을 듣고, 자전거 종소리에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인 후,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다.

2. 정답 ①

소년은 서울에 도착하여 ‘감격’을 느꼈고, ‘빨래터’, ‘권투’ 연습, ‘걱정이 떴’ 등을 보며 ‘신기하였다’, ‘상쾌하다’, ‘재미스러웠다’ 등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에 ‘서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끝없는 모욕’을 느꼈다.

② ‘불안감’이나 ‘안도감’은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③ ‘실망감’이나 ‘체념’보다는 ‘모욕감’을 느꼈다.

④ ‘경계심’이나 ‘분노’보다는 ‘호기심’과 ‘모욕감’이 두드러진다.

⑤ ‘지루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은 ‘두려움’보다 ‘모욕감’으로 끝맺는다.

3. 정답 ②

소년은 한약국 밖으로 나온 뒤 ‘개천 속 빨래터’로,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으로, 다시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로 시선을 옮긴다. 이처럼

소년의 시선 이동에 따라 관찰한 대상을 차례로 나열하며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① 인물 간의 대화는 ‘서울 아이들’의 조롱 부분에서만 짧게 나타나며, 갈등 해결 방식도 아니다.

③ 시간은 서울 도착 직후의 관찰에서 놀림을 당하는 순간까지 순차적으로 흐르고 있다.

④ 서술자는 소년의 심리(‘감격을 주었다’, ‘모욕을 느끼지’)를 전달할 뿐, 인물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논평하지 않는다.

⑤ ‘전차’, ‘승강기’, ‘빨래터’ 등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사실적인 소재가 사용되었다.

4. 정답 ②

소년은 ‘민 주사’나 ‘포목전 주인’뿐만 아니라 ‘다리 밑에 모여서들’ 뒹구는 ‘걱정이 떴’조차도 잘나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대,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대상의 구체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이었다.

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라고 하여 일부에 해당할 뿐, 걱정이 떴까지 포함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③ ‘인력거’는 ‘취옥’의 사례일 뿐,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다.

④ ‘권투’ 연습은 ‘젊은이들’의 모습일 뿐, 모든 서울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

⑤ ‘걱정이 떴’들이 서로 돕는 모습은 묘사되지 않았으며,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가 뒹굴고’ 있다고 묘사된다.

5. 정답 ④

소년은 ‘승강기’에 대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라며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는 타 보고 싶은 마음을 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 방법을 궁리하며 기대를 이어간 것이다.

①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라고 했다.

② ‘무슨 장난인지’ 물렸지만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썩 재미스러웠다.’라고 했다.

- ③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 ⑤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이라고 했다.

6. [정답] ②

창수의 아버지는 창수를 한약국에 맡긴 날, 하룻밤도 묵지 않고 곧바로 영등포로 떠났다.

- ① 창수는 시골 '가평'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 ③ 주인 영감이 '피죤' 한 갑을 사 오라고 일 원 지폐를 주었다.
- ④ 창수가 반찬 가게 주인에게 더듬거리며 말을 했으나, 주인은 어림도 없는 소리라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 ⑤ 창수가 담배 가게를 몰라 망설일 때, 개천 건너 이발소 아이가 '배다리 가게'에서 판다고 일러 주었다.

7. [정답] ⑤

이 글은 창수가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심부름을 하고 아버지가 떠나는 시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간의 역전(역순행적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창수가 한약국 밖으로 나와 천변 풍경을 둘러보는 장면 등에서 창수의 시선을 따라 빨래터, 나무장 앞 젊은이들 등을 차례로 묘사한다.
- ②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부분,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하나~' 부분 등에서 심포의 잦은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청계천 변'이라는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빨래꾼들, 젊은이들, 걱정어 떤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어린이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 가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등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한다.

8. [정답] ⑤

아버지가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창수는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탐'을 마음 깊이 느꼈다. 안도감이나

해방감이 아닌, 외로움과 막막함을 느낀 것이다.

- ① 창수는 서울의 풍경에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뻐으며, '마음은 견잡을 수 없게 들떴다.'
- ② 창수는 천변 풍경이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하였다'고 느꼈으며, 권투 연습을 '퍽 재미스러웠다'고 생각했다.
- ③ 서울 아이들이 자신을 '시골 아이'라며 비웃자 '끝없는 모욕'을 느꼈고, 곧이어 '갑이 부쩍 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 ④ 거스름돈이 틀렸다는 주인 영감의 말에 '얼굴은 어처구니없이 붉어지고', '얼굴이 무섭게까지 새빨개'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9. [정답] ③

창수는 수길이에게 '승강기'를 타면 현기증이 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되뇌었다. 즉, 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

- ① ㉠(전차), ㉡(고층 건물), ㉢(승강기) 등은 모두 시골 '가평'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로, 상경한 창수의 '눈과 또 귀를 어지럽게도 바'쁘게 만들었다.
- ② 창수가 '화신상'에 '아무나 들어가요?'라고 묻자 아버지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다.'
- ④ '피죤' 담배 심부름은 창수가 거스름돈 계산을 실수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주인 영감에게 혼나고 곤경에 처하게 된다.
- ⑤ 아버지가 태우는 '마코'가 아닌 더 비싼 '피죤'을 태우는 것을 보고, 창수는 '전 영감'이 '참말 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10. [정답] ④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7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인물이나 사건의 총체성'보다는 '공간의 총체성'에 주력한 소설이다. 윗글(제3절)은 '창수'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창수가 50절 전체를 이끄는 단일한 중심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① 윗글의 소재명은 '제3절 시골서 온 아이'이다.
- ② 윗글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청계천 변'의 '한약국' 주변이다. 이는 <보기>의 핵심 공간과 일치한다.

③ 윗글에는 주인공인 창수 외에도 아버지, 주인 영감, 이발소 아이, 반찬 가게 주인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며, 이들은 <보기>의 70여 명의 인물에 포함된다.

⑤ 창수가 천변에서 본 빨래꾼들,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 걱정이 떴을 때 등의 모습은 청계천 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예시에 해당한다.

목단배포김시